

# 경제력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 표본 사업체 사례 연구 -

조 우 현\*

## 〈目 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모형의 설정과 추정결과 |
| II. 경제력 집중-임금관계에 대한 가설 | IV. 경제력집중과 임금구조   |
|                        | V. 맺는말            |

## I. 문제의 제기

이 논문<sup>1)</sup>의 1차적 목적은 우리나라 상품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경제력집중이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2차적인 목적은 경제력집중이 성별, 직종별 임금격차, 그리고 생산직근로자간의 임금격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근로자간의 소득분배에 경제력집중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1980년, 1984년 그리고 1989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한 지표로서 4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임금과 임금구

\*승실대학교 경제학과

1)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학술연구비 조성에 의한 자유공모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되었다. 필요한 실증분석작업을 도와준 승실대 노사관계대학원 권혜자씨에게 감사드린다.

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특히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40% 미만인 산업을 경쟁산업, 40% 이상 60% 미만인 산업을 중위저집중산업, 60% 이상 80% 미만인 산업을 중위고집중산업, 80% 이상인 산업을 고위고집중산업으로 했을 때, 경쟁산업과 고집중산업(중위고집중산업, 고위고집중산업)과의 임금격차를 추정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 여부가 임금과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경제력집중과 임금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우선 시장경제에 있어 경쟁을 확보하고 확충해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방향제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고도의 독과점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력집중과 그 효과는 산업조직론의 분야에서 그동안 다루어져 왔는데, 주로 독과점력이 가격을 책정하여 초과이윤을 달성하는 정도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고, 독과점력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과점력이 자본주의 경제의 안전성(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과점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야에서 일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산업조직론에서 경제력집중과 관련지어 또다른 방향의 연구는 산업집중률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였다.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주요한 논의는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그리고 여러 시장에 걸친 다수의 대규모 독과점기업을 1인 또는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기업집단, 즉 재벌에 의한 복합지배력 등으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은 자원배분에 심대한 왜곡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으며,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산업정책의 방향과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가 집중되고 있었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에서 생산자원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면 자유경제의 질서와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파괴된다. 자본, 인력 등 경제자원이 소수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됨에 따라 수많은 잠재기업의 창업과 기존 중소기업의 발전이 제약을 받는다. 경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독과점 기업들은 독과점 가격을 행사하여 장기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소비자는 경쟁적인 시장에 비하여 비싼 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게 되어 후생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축소시킨다. 국민경제 전체로 생산의 축소와 후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sup>2)</sup>

이러한 최근의 논의에 있어서조차 상품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이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고, 따라서 독과점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강철규 「경제력집중과 억제 대책」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 1992, p. 350.

필자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 즉 독과점력은 임금에 正의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독과점의 사회적 비용이란 상품시장에서의 독과점력이 노동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추정되는 독과점의 사회적 비용과, 독과점력이 임금에 正의 영향을 미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원배분 왜곡비용을 포함한 독과점의 사회적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즉 노동시장 왜곡으로 인한 추가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독과점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실제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경제력집중은 널리 알려진대로 상품시장 왜곡 뿐만 아니라 이번 논문이 밝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동질적 노동력에게 대단히 상이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자원배분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독과점분야와 비독과점 부문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를 조정하는 내용을 갖는 노동시장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독과점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경제력집중과 임금과의 관계분석은 시장경제에서 경쟁확충정책의 방향제시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근로소득분배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경제력집중이 성별 또는 직종별 임금격차에 어떠한 방법으로 작용하며, 우리나라 근로자 간의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고집중산업의 근로자와 경쟁산업의 근로자 간에 임금격차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노동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 死角지대에 있었던 분야라고 할 것이다.

노동경제학자들은 교육, 인적자본, 그리고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성과를 올렸고 노동시장 제도의 중요한 측면인 노동조합의 임금결정과정과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반면, 산업구조상의 특징, 예컨대 독과점적 산업구조, 재벌 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 등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보여오지 않았다. 60년대 경제개발 초기 이후 1990년대 최근에 이르기까지 30여년 이상에 걸쳐 거론되어 온 시장(또는 산업)구조상의 특징, 특히 경제력집중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체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규명되어야 할 대단히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력집중과 임금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별로 된 미시자료(disaggregate individual data)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박영범(1987), 정인수(1991), 그리고 최상철(1992), 이종훈(1992) 등 네 편의 논문밖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sup>3)</sup> 필자의 논문은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다 체계화하고 세련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필자의 논문은 1980년 이후 고집중부문과 경쟁부문 간에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역으로 노동시장의 교란이 발생하면 상품시장에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즉 필자의 논문은 인플레이션 발생원인에 대해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하게 된다.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존재할 경우, 이는 상품시장의 경제력집중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데, 반대로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현격한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력난시대에 경쟁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임금상승은 비교임금의 논리에 의해 고집중산업의 임금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전체경제에 임금상승이 파급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고집중산업이 이를 상품가격으로 전가할 경우 상품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간의 상호연쇄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II절에서 경제력집중-임금관계에 대한 가설과 사용된 자료에 대해서 간결히 설명하고, III절에서는 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하며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경제력집중의 효과의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IV절은 임금구조에 대한 경제력집중의 영향에 관해서이며, V절은 주요결론과 정책적 함의에 관해서이다.

## II. 경제력집중-임금관계에 대한 가설

### 1. 경제력집중의 정의 및 그 심각성

경제력(economic power)은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적 자원이나 활동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개별시장에서 기업이 갖는 지배력을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라고 하고, 여러 시장에 걸쳐, 또는 경제전반에 걸쳐 다수의 결합된 기업들이 지배력을 갖는 것을 복합지배력(conglomerate power)<sup>4)</sup>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 여러 시장에

3) 이정우(1984), 강명현(1991) 등은 산업별로 된 자료(aggregate industry data)를 이용하여 산업 집중률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4) 이규억·이성순(『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KDI, 1985, pp.89~90)은 경제력, 시장력, 복합력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였으나, 필자는 경제력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수용하고 시장력과 복합력은 우리 어감에 보다 적합하도록 시장지배력과 복합지배력으로 바꾸었다.

걸쳐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다수의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을 결합하는 기업집단(economic group), 그리고 ii) 이 기업집단을 특정 개인 또는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는 형태의 기업집단이라는 두 가지 특징에 의해 규정되는 재벌의 지배력이 주요한 형태의 경제력이다.

따라서 경제력집중은 개념적으로 개별시장에서 독과점기업에의 경제력집중과 여러 시장 또는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다수의 독과점적 기업을 결합하는 기업집단에의 경제력집중(우리나라의 특수경우로써 재벌에의 경제력집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시장집중의 현황과 추이

(단위: 개, %)

CR 3 (%)	1966		1970		1977		1981		1985		1989	
	산업수	출하액 비중	산업수	출하액 비중	산업수	출하액 비중	산업수	출하액 비중	산업수	출하액 비중	산업수	출하액 비중
80-100	50 (24.4)	22.0	58 (27.2)	24.3	108 (32.6)	33.0	100 (30.2)	28.1	124 (29.0)	33.4	101 (23.5)	26.8
60-80	51 (24.9)	20.0	47 (22.1)	28.5	77 (23.3)	18.7	76 (23.0)	26.2	89 (20.8)	26.4	100 (17.0)	17.0
40-60	48 (23.4)	27.3	56 (26.3)	22.4	87 (26.3)	22.5	80 (24.2)	21.8	87 (20.3)	13.5	100 (23.3)	22.1
20-40	40 (19.5)	15.3	39 (18.3)	16.0	50 (15.1)	21.1	58 (17.5)	19.3	93 (21.7)	19.2	104 (24.2)	17.6
0-20	16 (7.8)	15.2	13 (6.1)	8.8	9 (2.7)	4.7	17 (5.1)	4.6	35 (8.2)	7.5	52 (12.1)	16.5
합 계	205 (100)	100	213 (100)	100	331 (100)	100	331 (100)	100	428 (100)	100	430 (100)	100
가중평균	54.6		58.5		-		62.0		61.5		53.4	

주: 1) ( )안 숫자는 산업수 비중임(%).

2) 가중평균은 제조업 전체의 출하액에서 해당산업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한 것임.

자료: 1966년은 이규역(1977), pp.280-87.

1970년은 이규역·서진교(1981), p.114.

1977 및 1981년은 이규역·이재형·김주훈(1984), p.106.

1985년은 윤창호·이규역(1988), p.201.

1989년은 윤창호·이규역(1992), p.179.

우선 개별시장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산업(5자리분류)으로 하고 출하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을 경제력집중의 한 지표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살펴 보자. 〈표 1〉은 상위 3사 출하집중률(CR 3) 계층별 산업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력집중은 매우 높은 상태에 있어 1989년 제조업내

총 430개 세계분류산업 중에서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60% 이상인 고집중산업이 174개로 전체 세계분류산업수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1977년에 이르기까지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60% 이상인 고집중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되고 있어 산업집중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매우 높은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30년의 격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중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60년대 선진국의 산업집중을 상위 4사 출하집중률 계층별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2〉 참조),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상위 4사 출하집중률(CR4)이 60% 이상인 산업의 수는 각각 17.8%, 18.8%, 27.5%로 나타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산업집중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독일과의 비교에서도 독일의 상위 4사 일반집중률이 42.8%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3사 일반집중률이 53.4%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집중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상위 3사 출하집중률 자료밖에 없는데, 상위 4사의 집중률을 계산하여 선진국의 30년 전 자료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집중은 매우 높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외국의 시장집중

집중률 (%)	미국(CR4)		일본(CR4)		서독(CR4)		프랑스(CR4)	
	산업수 구성비	출하액 비중	산업수 구성비	출하액 비중	산업수 구성비	출하액 비중	산업수 구성비	출하액 비중
80-100	6.5	12.2	9.0	5.4	19.0	12.5	14.2	8.2
60-80	11.3	9.1	9.8	7.8	23.5	13.4	13.3	7.0
40-60	22.0	19.5	22.8	28.2	24.0	25.5	21.5	24.5
20-40	38.6	39.3	27.7	25.4	20.5	19.5	24.5	16.2
0-20	21.6	19.9	30.7	33.3	13.0	29.1	26.5	44.1
합 계	100.0 (417)	100.0	100.0 (512)	100.0	100.0 (200)	100.0	100.0 (204)	100.0
가중평균	40.9		35.4		42.8		33.1	

주: ( )안 숫자는 총산업수임.

자료: 植草益(1982), pp.20-21(장지상(1989), p.59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대단히 심각하여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을 분석할 경우에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반드시 파악해야만 한다. 1989년 현재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회사 262개 기업이 제조업부문 고용의 16.9%, 출하액의 35.4%를 점유하고 있다(〈표 3〉 참조). 전산업에 걸쳐서 30대 재벌의 평균 계열기업수는 1980년 12.9개에서 1989년 17.1개로 늘어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특히 재벌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주요품목의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독과점적 지위에 있

5) 최상철(1992), pp. 149~159.

다. 1987년 현재 30대 재벌이 생산하는 품목수는 1,499개인데, 이들 30대 재벌의 총출하액의 89.2%를 점하는 941개 품목이 최소한 3위 이내의 시장점유율을 시현하였다는 점(〈표 4〉 참조), 그리고 1989년 현재 경제기획원이 정하는 독과점적 상품시장<sup>6)</sup> 132개 중 30대재벌은 99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기획원이 지정고시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압도적 다수는 재벌계열사업체라는 점 등에서 여러시장에 걸쳐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독과점기업을 결합하는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의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이 정하는 독과점적 상품시장에서 재벌의 참여비율은 1984년 63.4%에서 1990년 75%로 크게 확대되어 생산물시장에서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 3〉 제조업부문 기업집단의 규모(1989년)

상위집단	출 하 액	고 용	부가급여	유형고정자산	계열기업수
5대	21.4	9.9	19.2	18.6	91
30대	35.4	16.9	36.1	30.1	262

자료: 윤창호·이규억(1992), p. 365

〈표 4〉 30대 재벌의 개별시장에서의 지위(1987)

(단위: 개, %)

	1 위		2 위		3 위		기 타		합 계	
	품목 출하 수 비중	224 59.2	품목 출하 수 비중	133 26.2	품목 출하 수 비중	68 6.5	품목 출하 수 비중	223 8.1	품목 출하 수 비중	648 100
5대 재벌	224	59.2	133	26.2	68	6.5	223	8.1	648	100
30대 재벌	475	55.5	296	25.1	170	8.9	558	10.8	1,499	100

자료: 이규억·이재형(1990), p.41.

〈표 5〉 재벌의 시장지배적 품목(1984-1989)

(단위: 개, %)

	1984	1986	1988	1989
품목수(A)	71	199	122	131
30대재벌(B)	45	77	84	99
B/A(%)	63.4	77.2	68.9	75.0

자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6) 1989년 현재 국내 총공급액(=국내총출하액 - 수출액 + 수입액)이 연 300억원 이상의 상품으로, 상위1사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또는 상위 3사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장을 칭한다. 이들 시장에서 독과점적 상태에 있는 사업체가 시장 지배적 사업체로 지정고시되어, 이들의 독점적 이윤추구행위 여부가 정부의 관리대상이 된다.

## 2. 경제력집중 - 임금관계에 대한 가설

경제력집중을 상위 3사 출하집중도 또는 재벌사업체 등 그 어느 것으로 측정하든 간에 상품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이 생산요소가격 특히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대단히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경제력집중-임금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상호 상충되는 가설들이 제시되어 왔다.

### 가설 I :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기업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그 대로 순응하는 것이 독과점기업의 이윤극대화방안이므로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지 또는 행사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노동시장의 임금에 하등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설이 있다. 정태적 이윤극대화모형에 근거를 두는 이 가설에 의하면 경제력 집중과 임금 간에 아무런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노동시장을 독과점 분야와 비독과점분야의 노동시장으로 구분했을 때, 독과점분야에서 독과점기업에 의한 산출량 제한은 오히려 독과점분야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들 축출된 노동자들이 비독과점분야에서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고용경쟁을 벌이게 되므로 오히려 전국적인 시장임금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시장임금이 전국적으로 하향평준화될 때에도 경제력집중과 임금 간에 아무런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에서는 나타날 것이다.

### 가설 II :

독과점기업들의 담합과 결탁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 기업간의 경쟁을 줄이고 독과점 기업들이 단결하여 마치 노동시장에서 유일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수요독점<sup>7)</sup>의 경우,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7) 조우현(1985)은 한 때 수요독점에 의한 임금결정원리에 경도되어 있었고, 박세일(1987)은 우리나라 임금결정원리를 근대부문(기술인력, 대기업)과 전통부문(미숙련인력,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근대부문에서는 수요독점모형에 의한 임금결정, 그리고 전통부문은 1970년대 중반 전환점(turning point) 통과이후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경쟁모형에 의한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로 수요독점모형은 우리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같이 小國이며, 상품시장이 고도의 독과점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독과점대기업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담합하기가 쉬워지는데, 그 이유는 담합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담합의 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요독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분석한 경우에는 박원구·박세일(1984)의 차별적 수요독점론에 의한 임금과 고용결정모형이 대표적이다. 박원구·박세일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근로자의 속성(성, 연령, 학력)별로 노동시장은 분할되어 있다.

ii) 기업은 노동자속성별로 각각 상이한 右上向하는 노동공급곡선에 직면하여, 차별적 수요독점자(discriminating monopsony)가 되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iii) 차별적 수요독점자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의해 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낮게 된다.

수요독점에 의하든 또는 노동자속성별로 다른 노동공급탄력성을 이용하여 임금을 노동자속성별로 상이하게 결정하는 차별적 수요독점에 의하든 간에, 상품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보다 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낮춘다는 것이 이 가설의 예측이다.

### 가설 III :

독과점기업은 시장지배력으로 해서 높은 이윤을 누리는데, 우세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선발·훈련시키므로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에 대해 합당한 고임금이 지급된다는 가설이 있다(Weiss, 1966). 이 가설이 예측하는 바는 독과점기업은 외관상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같으나, 노동자의 인적자본 또는 인적속성의 차이를 고려하면 고산업집중-고임금이라는 관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단위를 모두 동질적 단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동질적 노동단위당 노동생산성은 동질적 노동단위당 임금률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예측(즉 앞의 가설 I)과 부합하는 것이다. Hendricks (1975)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고집중산업-고임금이라는 관계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독점적 초과이윤이 존재하며 소수의 기업이 지배적인 고집중산업에 노조는 독점이윤 나누어먹기(rent-sharing)를 위해 독과점기업에 침투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고, 일단 노조조직에 성공하면 임금교섭시 소수 독과점기업으로부터 쉽게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산업집중-고임금이라는 관계는 사실상 노조영향력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함의는 노동시장을 주로 왜곡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노동부에 의해 제기된 주장, 예컨대 87년 노사분규 이후 노조는 독점이윤 나누어 먹기를 지향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독과점업종이 주축이 되는 전자·자

동차 등 수출주력업종은 노동비용상승을 높은 상품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주장은 고집중산업-고임금이 노조의 영향력증대의 결과라는 Hendricks의 주장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 가설 IV :

학력, 경력, 근속년수, 성 등 근로자 개인의 인적자본 또는 인적속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산업집중 자체가 임금에 직접적인 正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다. Dalton and Ford(1977), Long and Link(1983), Kwoka(1983), Belman(1988)등은 노동조합이 고집중산업에 조직됨에 따라 노동조합 임금인상효과로 인한 고집중산업 - 고임금이라는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집중 그 자체가 임금에 직접적인 正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8)</sup> 독과점기업(또는 고집중산업)에서 높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 i) 고용해보지 않고는 노동자들의 능력과 생산성을 미리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잘못 판단되어 들어온 노동자 때문에 생산의 손실이 클 때, 독과점기업은 고임금을 지급하여 良質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에 채용되기 위해 줄을 서있게 만들고, 기업은 대기하고 있는 노동자 중 良質의 노동력을 선발하고 이들을 훈련할 경우 신규노동자의 채용비용 및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투자<sup>9)</sup>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ii) 대규모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지휘·통솔할 수 있는 통제의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의하달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통제상실(control loss)이 초래되기 마련인데, 이를 방지하자면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흡인하고 이들 노동력이 고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알아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sup>10)</sup> 즉, 고임금은 근무태만, 해이, 결근 등을 감소시키고 성실성과 근면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노동통제의 한 방식이다.

8) Belman은 산업집중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었는데, 간접적 효과는 노조를 통해 나타나는 고산업집중 - 고임금의 관계이며 직접적 효과는 여타 요인이 일정불변일 때 산업집중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이다. Belman은 직접적 효과가 명확히 있으나, 다만 그 크기는 간접적 효과보다는 작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9) 성백남(1992)은 '높은 자본집약도와 산업집중도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은 축적되는(기업) 특수 인적자본의 존재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이동을 낮추어 오히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고임금을 고임금에 결맞는 높은 생산성과 연결됨을 논하고 있다.

10) 조우현(1992)은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수요측 특성과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p. 259)에서 이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 iii) 독점적 초과이윤을 벌고 있는 독과점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량모범기업이라는 기업이미지를 일반인에게 인식시켜 기업의 독과점지배력을 은닉하고자 한다.
- iv) 진입장벽, 정부의 보호 등으로 초과이윤을 버는 독과점기업은 그 일부를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으로 배분하여 초과이윤 나누어먹기(rent sharing)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높은 임금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상품가격이라는 형태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노조운동 활성화에는 독점적 초과이윤을 나누어 먹기를 원하는 노조의 침투노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독과점기업이 스스로 임금인상을 시키는 경우(노조의 위협효과라고 불리운다)에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위의 이유중 i), ii), iii)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원리와 일치하나, iv)는 초과이윤 나누어 먹기라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Slichter(1950)와 Garvarino(1950)의 논의 이후 전개되어 온 고집중-고임금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노조가 1935년을 기점으로 성공적으로 조직된 이후의 논의이며 노조가 거의 미미했던 1935년 이전의 자료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고집중-고임금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연구자의 모델과 사용된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노조가 미약했던 시기인 1980, 1984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있어서 산업집중과 임금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노조활성기인 1989년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학계의 연구결과에도 일정한 함의를 던지는 일이 될 것이다.

### 3. 경제력집중의 주요 지표와 사용된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80년, 84년, 89년의 직종별 임금통계이다. 그리고 자료는 제조업에만 국한되는데, 이는 제조업분야에 경제력집중의 지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집중과 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경제력집중의 주요지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제력집중을 측정하는 주요지표로 두 통계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하나는 개별사업체가 생산하는 상품의 산업분류에 있어서 상위3사 출하집중률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사업체의 재벌사업체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상위3사 출하집중률은 특정산업 또는 시장에서 상위3개 기업이 점유하는 출하액의 비

중이며 이는 산업내의 집중상태를 측정하는 산업집중률지표 중의 하나이다. 산업집중률은 고용, 생산, 부가가치, 자산, 출하 등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을 산업집중률의 대리변수로 이용할 것이다. 이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산업 또는 시장의 범위이다. 한국산업분류의 3자리 산업분류별(또는 소분류산업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은 경제력 집중에 관한 대단히 부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sup>11)</sup> 구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조직론 분야의 실증분석, 예컨대 산업집중률이 초과이윤, 성장률, 효율성 그리고 기술혁신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은 거의 대부분 4자리 산업분류별 산업집중률을 이용해 온 관례에 따라 4자리 산업분류(또는 細산업분류)에서 상위 3사의 출하집중률을 경제력집중의 대리변수로 이용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직종별 임금통계에 있어서 산업분류는 소분류(또는 3자리 산업분류)로 되어 있다. 소분류산업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을 이용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소분류산업이 시장의 범위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분류산업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은 시장지배력의 부정확한 지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종별 임금통계의 소산업분류를 세산업분류(또는 4자리 산업분류)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산업분류를 세산업분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박영범이 1982년의 직종별 임금통계에서 제조업 2,000개 가량 사업체의 3자리 산업분류를 노동부 발간 『표본사업체명단』을 이용하여 모두 4자리 혹은 5자리 산업분류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필자가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수요특성과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이라는 논문에서 고안한 방법이다. 즉 직종별 임금통계가 기본적으로 사업체 조사자료(establishment survey data)라는 점에 착안하여 직종별 임금조사 대상 사업체 전체를 토대로 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총화확률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1980년 257개, 1984년 273개, 1989년 292개의 표본사업체를 추출한 후(이를 앞으로 「사업체표본」이라고 하겠다), 이 「사업체표본」에 속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 i) 해당년도의 『표본사업체명단』(노동부 발간)을 이용하여 각 사업체의 주요생산물명을 확인한 후, 직종별 임금통계조사 때 확인되는 3자리 산업분류를 4자리 산업분류로 전환한다.
- ii) 해당년도의 KDI의 5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5자리 산업분류별 출하액을 가중치로 하여 4자리 산업분류별 출하집중률을 계산한 후, 이를 i)의 사업체의 4자리 산업분류결과에 접합시킨다.

11) 이종훈(1992)은 3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을 개인별 임금자료에 이용하였다.

필자는 위의 i)과 ii)의 작업을 반복하여 80년, 84년, 89년 3개 년도의 4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3사 출하집중도를 직종별 임금통계에 접합시켰다. 다만 1980년 4자리 산업분류별 출하집중률은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981년의 정보를 대신 이용하였다.

필자에 의해 고안된 이러한 방법은 「사업체표본」에 속하는 사업체가 재벌사업체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사업체표본」의 각 사업체가 재벌사업체인지 아닌지는 필자와 최상철(1992)이 공동작업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 최상철은 80, 84, 89년의 「사업체표본」으로 잡힌 사업체의 명단을 찾아낸 후 이를 한국신용평가(주) 『재벌 분석보고서』(1988)에 나타난 1980년과 1984년 30대 재벌의 계열사업체 명단 및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분석』(1990)에 나타난 1989년 30대 재벌의 계열사업체 명단과 대조하여 80, 84, 89년의 「사업체표본」의 사업체가 재벌계열 사업체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필자는 재벌에 관한 한 최상철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sup>12)</sup>

1980년 267개, 1984년 273개, 1989년 267개의 「사업체표본」에 세분류별 상위3사 출하집중도 및 재벌사업체 여부에 관한 정보를 외삽한 후, 우리는 각 년도 「사업체표본」에 속하는 근로자 중 1/4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였다. 1980년 24,461명, 1984년 23,826명, 1989년 24,749명의 근로자가 추출되었다(이를 「근로자표본」이라고 부르겠다).<sup>13)</sup>

이와같은 몇가지 단계를 거쳐서 경제력집중의 궤지표에 관한 통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온 직종별 임금통계와 접합시킴에 따라 경제력집중이 임금과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만든 자료의 한계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70년대의 직종별 임금통계를 이용하여 4자리 산업분류로 된 산업집중도와 임금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면 70년대와 80년대의 비교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불행히도 70년대의 직종별 임금통계 표본사업체 명단은 조사기관인 노동부 자체 내에서도 소실되어 이용가능하지 않으므로 3자리 산업분류를 4자리 산업분류로 전환할 수 없어 70년대의 분석은 이 논문에서 제외된다.

둘째, 80, 84, 89년의 「사업체표본」이 선정되고 난 후, 선정된 사업체표본에 속하는 근

12) 정인수(1992)는 1989년 현재 50대재벌 계열기업 642개 사업체(한국은행 여신관리 50대재벌 계열기업)명단을 직종별 임금통계 조사대상인 전산업의 사업체, 즉 1986년 3,218개, 1987년 3,168개, 1988년 3,435개 등의 사업체명단과 일일이 대조하는 엄청난 작업을 한 결과 재벌사업체, 비재벌사업체라는 정보를 직종별 임금통계에 외삽시킬 수 있었다.

13) 1984년, 1989년 사업체표본 및 근로자표본의 설계 및 기초통계분석은 조우현(1991) 참조. 그리고 1990년 사업체표본 및 근로자표본의 설계 및 기초통계분석은 최상철(1991) 참조.

로자들을 단순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해 1/4의 근로자를 추출하여 「근로자표본」을 설계하였는 바, 이 「근로자표본」은 전국적 고용분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89년의 경우 사업체 종업원 수 10~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인 이상을 각각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로 정의했을 때, 1989년의 경우 직종별 임금통계 조사대상인 2,015개의 제조업사업체의 분포는 규모별로 16.3%, 26.0%, 18.4%, 9.6%, 30.0%로 되어 있으나 전수조사인 1989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에서는 각 규모별 분포가 52.9%, 33.6%, 9.8%, 1.7%, 2.0%를 점유하고 있어, 직종별 임금통계 자체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업체노동실태조사의 기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분포를 찾아내어, 직종별 임금통계에서 대기업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가중치를,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가중치를 주어 표본추출함으로써 전국적 고용분포와 일치되는 근로자표본을 설계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자료의 경우 직종별 임금통계의 사업체 분포를 토대로 표본추출한 결과, 1989년의 경우 292개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1, 2, 3, 4, 5규모에서 각각 11.6%, 18.5%, 17.8%, 11.6%, 40.4%로 직종별 임금통계보다 오히려 더 심한 대기업위주의 근로자표본을 갖게 되었다. 이때 1989년의 경우 292개 사업체에 소속되는 근로자를 전국적 고용분포와 일치되도록 조정하지 않았고, 전국적 고용분포와 일치되는 근로자표본 및 사업체표본의 설계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제조업표본사업체 사례 연구’라는 副題가 붙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방법론은 종전의 방법론, 예컨대 고집중산업과 저집중산업의 임금격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로 전환시키는 부적절한 방법론(박원구·박세일(1984, p.244), 이원덕(1987) 등에 의해 이용됨)을 극복하는 장점을 갖는다.

### Ⅲ. 모형의 설정과 추정결과

이 절의 주요목적은 상품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경제력 집중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으며 필자가 검정하려는 바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의 차이 및 여타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상품시장의 경제력집중이 임금에

正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 1. 산업집중률과 임금

우선 가장 전통적인 모형인 산업집중률과 임금 간의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ln \text{ WAGE} = & \alpha_0 + \alpha_1 \text{ PRIME} + \alpha_2 \text{ HIGH} + \alpha_3 \text{ JCOLL} + \alpha_4 \text{ UNIV} + \alpha_5 \text{ TEN} + \alpha_6 \text{ TENSQ} \\ & + \alpha_7 \text{ EXP} + \alpha_8 \text{ EXPSQ} + \alpha_9 \text{ MARRD} + \alpha_{10} \text{ SIZE12} + \alpha_{11} \text{ SIZE4} + \alpha_{12} \text{ SIZE5} \\ & + \alpha_{13} \text{ MANAGE} + \alpha_{14} \text{ CLERK} + \alpha_{15} \text{ REG2} + \alpha_{16} \text{ REG3} + \alpha_{17} \text{ REG4} + \alpha_{18} \text{ REG5} \\ & + \alpha_{19} \text{ CR3}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모형 (1)}$$

위 모형에서 WAGE는 [(정액급여 + 월할분 보너스)/월 정규 근로시간]으로 정의되는 시간당 임금이며 ln WAGE는 시간당 임금의 자연대수값이다. 초과급여 및 초과근무시간은 제외되었다.

모형 (1)에 나타난 설명변수를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RIME은 국졸 더미변수, HIGH, JCOLL, UNIV는 고졸, 전문대졸 그리고 대졸 더미변수이며 학력의 기준그룹은 중졸이다. TEN은 근속년수이며 TENSQ는 근속년수의 자승이다. 경력년수(EXP)는 (나이 - 6 - 정규학교졸업을 기준으로 한 교육년수 - 근속년수)로 현직장의부에서의 경력년수를 측정하며 EXPSQ는 경력년수의 자승이다. MARRD는 기혼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MANAGE는 전문기술직 및 관리행정직, CLERK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을 나타내는 직종더미이며 직종의 기준그룹은 생산직이다. REG는 지역더미변수이며 서울이 기준지역이다. REG2는 부산, REG3는 경기, REG4는 강원, 충청, 전라지역, REG5는 부산을 제외한 경상도를 나타내는 지역더미변수이다. 사업체규모 더미변수는 SIZE12, SIZE4, SIZE5인데 사업체 규모의 기준그룹은 사업체 규모가 100인 이상~300인 미만이며 SIZE12는 100인 미만, SIZE4는 300인 이상~500인 미만, SIZE5는 500인 이상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CR3는 4자리 산업분류별 상위3사 출하집중률이다.

학력, 경력, 근속년수, 결혼여부는 인적자본 및 인적속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직종, 사업체의 소재지역, 사업체 규모 등은 직무 또는 직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경제력집중을 나타내는 변수는 4자리 산업분류별 상위3사 출하집중률이다.

모형 (1)에서 핵심적 설명변수는 CR3인데 이는 세분류산업의 상위3사 출하집중률이며 우리가 경제력집중의 주요지표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단위는 0.0에서 1.0 사이

의 값을 갖는다. 모형 (1)에서 CR3의 계수( $\alpha_{19}$ )는 여타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즉 학력, 경력, 근속년수, 결혼여부, 직종, 지역, 기업규모 그리고 성<sup>14)</sup>이 동일할 때 산업집중도가 변화함에 따른 근로자임금의 변화율, 즉

$$\frac{\partial \ln WAGE}{\partial CR3} \left| \begin{array}{l} \frac{\partial WAGE}{\partial CR3} \\ WAGE \end{array} \right. = \alpha_{19}$$

여타조건 일정

가 된다.

만약 앞절의 가설 I과 가설 III과 같이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어서 상품시장에 있어서 경제력집중이 노동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확립될 것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alpha_{19} = 0$ 이 된다. 앞절의 가설 II와 같은 수요독점모형에서는 귀무가설은  $\alpha_{19} < 0$ 이 될 것이다. 대립가설은 산업집중률이 높은 산업과 산업집중률이 낮은 산업 간에 임금의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는 가설, 즉  $\alpha_{19} \neq 0$ 이 된다. 1980년, 1984년, 1989년의 제조업남성의 추정결과는 <표 6>에 실려 있고, 제조업여성의 추정결과는 <표 7>에 실려 있다.

우선 <표 6>에 나타난 남성의 경우 CR3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즉  $\hat{\alpha}_{19}$ 는 정의 값을 갖고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산업집중률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 간에는 임금의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hat{\alpha}_{19}$ 이 일관되게 정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고집중산업이 저집중산업보다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에 대해 높은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CR3가 10% 증가할 때 1980년은 임금이 3.6% 증가, 1984년은 4.8% 증가, 1989년은 5.3% 증가하고 있다. 산업집중률이 높아 경제력집중이 높은 산업에서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에게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프리미엄은 198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1984년 경제력집중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표 7> 참조)에는 CR3가 10% 증가할 때, 임금이 1980년은 3.6%, 1984년은 2.5%, 1989년은 2.7% 증가하는데,  $\hat{\alpha}_{19}$ 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980년 CR3가 10% 증가할 때 남녀 모두 임금이 3.6% 증가하였으나, 1984년과 1989년에 있어서는 여성의 임금증가율은 남성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모형 (1)의 先行연구로는 우리나라에서 박영범(1987)의 연구밖에 없다. 박영범은 1982년 한 년도의 남성에 국한하여 82년 직종별 임금통계조사 제조업사업체 2000여개 모두

14) 우리는 남녀별로 나누어 모형(1)을 추정할 것이므로 성이 통제되는 것이다.



〈표 6〉 모형 (1)의 추정결과: 제조업남성

(OLS)

	1980		1984		1989	
CONSTANT	5.504	(286.49)	6.039	(357.48)	6.954	(456.92)
PRIME	-0.131	(10.96)	-0.072	(5.82)	-0.103	(7.82)
HIGH	0.255	(28.27)	0.147	(20.05)	0.138	(20.46)
JCOLL	0.477	(18.83)	0.301	(18.27)	0.202	(16.12)
UNIV	0.857	(48.20)	0.670	(50.50)	0.494	(44.61)
TEN	0.086	(35.43)	0.095	(50.84)	0.071	(47.27)
TENSQ	-0.002	(14.15)	-0.002	(23.16)	0.001	(20.72)
EXP	0.042	(25.85)	0.027	(19.99)	0.022	(21.64)
EXPSQ	-0.0008	(19.13)	-0.0006	(14.72)	-0.0005	(17.07)
MARRD	0.081	(7.43)	0.114	(13.72)	0.071	(10.79)
MANAGE	0.439	(25.12)	0.319	(29.16)	0.227	(25.20)
CLERK	0.234	(22.25)	0.161	(19.51)	0.101	(14.37)
REG 2	-0.140	(12.10)	-0.182	(17.00)	-0.310	(28.74)
REG 3	-0.105	(9.81)	-0.136	(15.63)	-0.089	(11.21)
REG 4	-0.182	(12.31)	-0.098	(9.28)	-0.084	(8.01)
REG 5	0.044	(3.83)	0.072	(8.81)	-0.023	(2.74)
SIZED 12	0.028	(1.61)	0.050	(2.86)	-0.070	(5.29)
SIZED 4	0.032	(1.98)	-0.025	(1.86)	0.015	(1.43)
SIZED 5	0.029	(2.36)	0.070	(6.36)	0.078	(9.38)
CR 3	0.363	(17.03)	0.483	(31.93)	0.529	(38.98)
$\bar{R}^2$	0.65		0.68		0.65	
N	11723		13330		14753	
ln WAGE의 평균값	6.51		7.19		7.94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근로자 표본」

의 소분류산업을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집중률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밝혔다. 우리의 모형과 곧바로 비교할 수 있는 그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산업집중률이 10% 증가할 때 남성임금은 2.8%~3.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sup>15)</sup> 필자의 추정결과와 박영범의 추정결과를 결합하면 산업집중도 10% 증가가 남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1980년 3.6%, 1982년 2.8%에서 3.5%의 범위, 1984년 4.8%, 1989년 5.3%로 1980년과 1982년은 비교적 유사한 크기를 지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5) 박영범(1987) p. 39

〈표 7〉 모형 (1)의 추정결과: 제조업남성

(OLS)

	1980		1984		1989	
CONSTANT	5.297	(414.44)	5.981	(455.77)	6.834	(547.52)
PRIME	-0.121	(20.44)	-0.072	(8.09)	-0.031	(3.11)
HIGH	0.241	(31.53)	0.178	(26.54)	0.097	(16.91)
JCOLL	0.579	(11.53)	0.469	(10.39)	0.126	(5.46)
UNIV	1.007	(16.60)	0.667	(10.95)	0.467	(16.46)
TEN	0.110	(44.91)	0.096	(40.40)	0.089	(41.63)
TENSQ	-0.005	(16.30)	-0.003	(13.40)	-0.003	(19.25)
EXP	0.034	(25.25)	0.030	(22.86)	0.004	(3.67)
EXPSQ	-0.0007	(19.66)	-0.0008	(21.17)	-0.0001	(3.78)
MARRD	-0.142	(9.54)	-0.113	(8.61)	-0.037	(3.28)
MANAGE	0.352	(6.96)	0.341	(6.88)	0.299	(12.50)
CLERK	0.191	(19.04)	0.201	(20.91)	0.148	(21.14)
REG 2	-0.122	(17.27)	-0.206	(25.40)	-0.242	(31.21)
REG 3	-0.082	(11.35)	-0.199	(25.56)	0.026	(3.81)
REG 4	-0.155	(17.23)	-0.121	(12.64)	-0.070	(7.43)
REG 5	-0.050	(6.66)	-0.157	(20.94)	-0.082	(11.53)
SIZED 12	0.054	(3.97)	0.074	(4.38)	-0.070	(5.09)
SIZED 4	-0.027	(2.63)	-0.037	(3.29)	0.034	(3.21)
SIZED 5	0.059	(7.32)	0.062	(7.12)	0.138	(15.52)
CR 3	0.355	(22.04)	0.246	(14.49)	0.267	(15.79)
$\bar{R}^2$	0.45		0.49		0.54	
N	12736		10234		9303	
ln WAGE의 평균값	5.73		6.31		7.27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근로자 표본」

모형 (1)을 우선적으로 추정한 것은 미국에서 주로 이 모형을 추정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나라와의 비교차원에서 그리하였다. 앞절의 가설 II, 즉 수요독점모형은 타당치 않으며, Weiss(1966), Haworth & Rasmussen(1971), Hendricks(1975)에 의해 주장된 가설, 즉 산업집중도가 임금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설 II 및 앞절의 가설 I 또한 한국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 가설 II의 계론으로 제기된 논의, 즉 외형상 고집중산업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분야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효과 때문이라는 Hendricks의 논지 또한 한국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1980~1984년 기간은 노조가 거의 유명무실하던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앞절 가설 IV에서 설명된 Dalton and Ford(1977), Long and Link(1983) 그리고 Kwoka(1983)등에 의해 제시된 가설, 즉 산

업집중도는 임금에 대해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正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가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우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산업집중도는 노동자의 임금에 正의 효과를 독자적으로 발휘한다.<sup>16)</sup> 특히 노조의 교섭력이 거의 유명무실하던 1984년에 산업집중도의 임금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된 시기인 1989년에는 1984년에 비해 산업집중도의 임금효과가 극히 근소하게 상승한 것은 대단한 주목을 요하는 점이다. 이는 노조의 임금인상압력으로 독과점부분의 임금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 임금안정을 기하고 근로자간의 임금소득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액임금제의 강제실시라는 노동시장정책보다 독과점 규제, 경제력집중 억제 등의 산업정책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고위고집중산업, 중위고집중산업, 중위저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임금격차

모형 (1)의 추정치는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박영범의 선행연구 및 미국문헌과의 비교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모형 (1)에서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은 시간당 임금의 자연대수값과 CR3 간에는 線形관계(linear relationship)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시간당임금의 자연대수값의 변화와 CR3의 변화는 선형관계에 있지 않으며<sup>17)</sup>, CR3가 60% 이상인 고집중산업과 60% 미만인 저집중산업<sup>18)</sup> 간에 CR3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단층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CR3가 60% 이상인 고집중산업 내에서도 CR3가

16) 모형의 정형화(specification)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Dalton and Ford는 1969년의 제조업 남자생산직의 경우 3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4사 출하집중률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임금이 7% 증가한다고 하였고, Belman은 1978년 제조업 남녀를 모두 포함한 생산직의 경우 3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4사 출하집중률이 10% 증가하면 임금이 5.6% 증가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경우 모형 (1)에서 직종더미만을 뺀 후 남자생산직의 표본에서 1989년 현재 4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10% 증가하면 임금이 6.4% 증가하고, 여자생산직의 경우는 임금이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생산직의 경우는 미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3자리 분류별 산업집중률과 상위 4사 산업 집중률을 사용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자리 산업집중률과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을 사용했다는 차이점은 유념되어야 한다.

17) 이종훈(1992)은 1986년과 1988년의 임금프리미엄 결정요인에 있어 3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을 개인별 임금결정모형에 이용하였는데, 상위 3사 출하집중률과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의 자승항을 설명변수로 넣어 집중률이 높을수록 임금의 증가율이 체증함을 보이고 있다.

18) 한 산업의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60% 이상이면 고집중산업이며, 60% 미만이면 저집중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KDI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이용되는 분류방법이다.

60-80% 미만인 산업과, CR3가 80% 이상인 산업 간에 단층이 있을 수 있으며, CR3가 60% 미만인 저집중산업에서는 CR3가 40-60% 미만인 산업과 CR3가 0-40% 미만인 산업 간에도 CR3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단층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감안하여 필자는 모형 (1)의 CR3를 더미변수화하되, CR3를 네 분류로 하고 CR3가 40% 미만인 산업을 기준산업으로 하였다. 즉 우리는 LOCRDD, MICRDD, HICRDD라는 더미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R3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LOCRDD=1, 나머지는 0
- CR3가 60% 이상 80% 미만이면 MICRDD=1, 나머지는 0
- CR3가 80% 이상이면 HICRDD=1, 나머지는 0
- CR3가 40% 미만이면 LOCRDD=MICRDD=HICRDD=0

우리는 모형 (1)에서 CR3 대신에 더미변수 LOCRDD, MICRDD 그리고 HICRDD를 첨가하고 이를 모형 (2)라고 하겠다. 그리고 모형을 보다 간결히 표현하기 위하여 모형 (1)에서 인적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X_1 \dots X_9$ 라고 하고 직무 또는 직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X_{10} \dots X_{18}$ 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다.

$$\ln \text{WAGE}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9 X_9 + \beta_{10} X_{10} + \dots + \beta_{18} X_{18} + \beta_{19} \text{LOCRDD} + \beta_{20} \text{MICRDD} + \beta_{21} \text{HICRDD} + \varepsilon \dots \dots \dots \text{모형(2)}$$

우리는 앞으로 LOCRDD를 중위저집중산업더미, MICRDD를 중위고집중산업더미, 그리고 HICRDD를 고위고집중산업더미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CR3가 60% 이상이면 고집중산업이라고 분류될 때, CR3가 80% 이상이면 고집중산업 중에서 높은 계층이라는 의미에서 고위고집중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며, CR3가 60% 미만이면 저집중산업으로 분류될 때, CR3가 40% 미만이면 저집중산업 중에서 낮은 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저위저집중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명료한 구분방법이다. 고집중산업이면서 고위고집중이 아닌 산업과 저집중산업이면서 저위저집중산업이 아닌 산업은 고위고집중과 저위저집중 사이에 위치하므로 중위라는 접두어를 붙여, 각각 중위고집중산업, 중위저집중산업으로 한 것이다<sup>19)</sup>. 저위저집중산업은 경쟁산업이라고 부르겠다.

19) 산업조직론에서는 고집중산업 중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60-80% 미만이면 중위집중형, 80-100%이면 고위집중형이라고 부르고, 저집중산업, 즉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40-60% 이면 저위집중형, 40% 미만이면 경쟁형이라고 부른다. 특히 60% 이상인 고집중산업을 60-80% 미만의 중위집중형과 80% 이상의 고위집중형으로 나누는 것은 용어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집중산업을 고위고집중산업과 중위고집중산업으로 나누고 용어를 새롭게 하였다.

모형 (2)에서 HICRDD의 계수( $\beta_{21}$ )는 여타의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경쟁산업 간의 상대적 임금격차를 측정한다. 고위고집중산업의 평균임금의 자연대수값을  $\ln W^H$ , 경쟁산업의 평균임금의 자연대수값을  $\ln W^C$ 이라고 할 때, 즉

$$\ln W^H - \ln W^C = \beta_{21}$$

이 된다. 그러나

$$\ln W^H - \ln W^C \approx \frac{W^H - W^C}{W^C}$$

따라서

$$\beta_{21} \approx \frac{W^H - W^C}{W^C}$$

가 되고,  $\beta_{21}$ 은 다름아니라 고위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간의 임금의 % 차이가 되는 것이다.<sup>20)</sup> 따라서 모형(2)의  $\beta_{19}$ ,  $\beta_{20}$ ,  $\beta_{21}$ 은 각각 중위저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임금격차, 중위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임금격차, 고위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간의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parameter)이다.

모형 (2)의 남녀별 추정결과는 <표 8>과 <표 9>에 실려 있다. 우리는 우선 남자의 추정 결과인 <표 8>에서 나타난 중요한 다섯가지 측면을 논의한 후 <표 9>에서 나타난 여성의 특징 세가지를 논의하겠다.

첫째, 우리가 추론한 바와 같이 고집중산업내에서 중위고집중산업과 고위고집중산업 간에, 그리고 저집중산업내에서 경쟁산업과 중위저집중산업간에 임금격차의 단층이 존재한다. 이는 모형 (2)를 추정하는 것이 모형 (1)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 상대적 임금격차를 구하는 데에는 유의사항이 있다. 예컨대 박원구, 박세일(1984), 배무기(1990), 정인수(1991)는 노동조합의 상대임금효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상대임금효과(=  $\frac{\text{노조평균임금} - \text{비노조평균임금}}{\text{비노조평균임금}}$ )를  $\lambda$ 로 하고, 임금회귀모형의 노조더미계

수의 값을  $\alpha$ 라고 했을 때  $\lambda = \exp(\alpha) - 1$ 로 구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alpha$ 의 값이 크지 않은 경우 예컨대  $\alpha$ 의 값이 0.3이하일때 이  $\lambda \approx \alpha$ 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H. G.Lewis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데, H.G.Lewis의 방법론은 산업별로 된 자료에 합당하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개인별 노동조합 가입유무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lambda \approx \alpha$ 라는 점을 감안하여  $\lambda \approx \exp(\alpha) - 1$ 의 방식을 적용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행할 필요가 없다(조우현, 1988 참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경쟁산업에 대비한 고위고집중산업의 상대임금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둘째, 1980년에 고위고집중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여타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에도 경쟁산업에 고용된 것보다 27.4%가 높다. 고위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순임금 격차는 1984년에 29.1%로 1980년보다 약간 커졌다가, 1989년에는 23.4%로 1980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무엇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가? 1984년은 불황기이며 고위고집중산업의 상품시장은 비탄력적이어서 불황기의 이윤감소를 가격인상을 통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이윤을 유지할 경우 그 이윤의 일부가 노동자에게 종전처럼 배분되는 반면, 경쟁산업은 불황기에 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감소로 임금상승이 정체되어 불황기에

〈표 8〉 모형 (2)의 추정결과: 제조업남성

(OLS)

	1980		1984		1989	
CONSTANT	5.631	(325.23)	6.221	(405.36)	7.121	(495.41)
PRIME	-0.131	(10.91)	-0.070	(5.76)	-0.094	(6.95)
HIGH	0.254	(28.16)	0.163	(22.25)	0.148	(21.41)
JCOLL	0.480	(18.95)	0.326	(20.14)	0.227	(17.81)
UNIV	0.856	(48.11)	0.697	(53.15)	0.506	(44.60)
TEN	0.087	(35.56)	0.095	(51.81)	0.075	(49.04)
TENSQ	-0.002	(14.24)	-0.002	(23.48)	-0.001	(22.08)
EXP	0.042	(25.66)	0.026	(20.15)	0.021	(20.19)
EXPSQ	-0.0008	(19.07)	-0.0006	(14.85)	-0.0005	(16.28)
MARRD	0.083	(7.59)	0.113	(13.80)	0.081	(11.96)
MANAGE	0.434	(24.81)	0.317	(29.22)	0.223	(24.06)
CLERK	0.229	(21.75)	0.160	(19.61)	0.096	(13.34)
REG 2	-0.139	(11.97)	-0.177	(16.69)	-0.247	(22.58)
REG 3	-0.099	(9.10)	-0.130	(14.98)	-0.081	(9.97)
REG 4	-0.184	(12.37)	-0.130	(12.28)	-0.064	(5.89)
REG 5	0.043	(3.70)	0.049	(6.06)	-0.005	(0.67)
SIZED 12	0.046	(2.62)	0.023	(1.40)	-0.082	(6.04)
SIZED 4	0.015	(0.90)	-0.043	(3.26)	-0.002	(0.23)
SIZED 5	0.033	(2.59)	0.054	(5.15)	0.076	(8.84)
LOCRDD	0.080	(8.01)	0.077	(8.32)	0.065	(9.73)
MICRDD	0.099	(10.00)	0.127	(17.00)	0.168	(24.68)
HICRDD	0.274	(16.54)	0.291	(34.15)	0.234	(25.12)
$\bar{R}^2$	0.65		0.69		0.62	
N	11723		13519		15181	
ln WAGE의 평균값	6.51		7.19		7.94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근로자 표본」

오히려 경쟁산업과 고위고집중산업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호황기에 있어서는 경쟁산업에서 미숙련노동력의 수요 증대로 경쟁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여 경쟁산업과 고위고집중산업 간의 임금격차는 축소된다.

세째, 중위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순임금격차는 1980년 9.9%, 1984년 12.7%, 1989년 16.8%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나왔다. 1980년과 1989년을 비교하면 경쟁산업에 비해 중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은 증대되고 고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은 1987년 이후 노조운동이 주로 중화학공업분야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중위고집중산업에서 노조의 직접적인 임금인상효과 또는 노조의 위협효과 때문에 중위고집중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네째, 1989년 현재 생산직에 대비한 전문관리직의 임금프리미엄이 22.3%라는 수치인 것에 비하면 고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은 23.4%로 그것보다 높다. 생산직에 대비한 사무직의 임금프리미엄이 9.6%인 점을 감안하면 16.8%인 중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은 그것보다 훨씬 높다. 1989년 현재 직종간 임금의 순격차보다 산업집중도에 따른 임금의 순격차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한편으로는 고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이 198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해 온 것은 독과점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독과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의 계산은 노동시장의 왜곡의 심화라는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인 <표 9>에서는 세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경쟁산업 대비 고위고집중산업과 중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은 1989년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1980년과 1984년은 거의 동일하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경쟁산업 대비 중위저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은 1980, 1984, 1989년에 각각 16.0%, 3.4%, -1.3%로 경쟁산업과 중위저집중산업 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하면,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CR3가 60% 이상인 고집중산업과 60% 미만인 저집중산업 간에 단층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남성의 경우와 다른 현상이다.

둘째, CR3가 60% 이상인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불황기인 1984년에 확대되고 호황기인 1989년에 축소된 것은 남성의 경우와 동일한 현상으로 남성의 경우에 설명된 이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경쟁산업 대비 고위고집중산업의 여성의 임금프리미엄은 남성의 그것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고위고집중산업에서는 여성의 취업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과점 이윤의 배분에 있어서, 그리고 고용기회측면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대비하여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재벌과 임금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는 강력히 실재하는 경제력집중의 특수한 양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소유주 및 그 가족에 집

〈표 9〉 모형 (2)의 추정결과: 제조업여성

(OLS)

	1980		1984		1989	
CONSTANT	5.394	(500.18)	6.050	(533.94)	6.919	(649.18)
PRIME	-0.114	(19.53)	-0.066	(7.62)	-0.034	(3.43)
HIGH	0.223	(29.62)	0.158	(23.38)	0.082	(13.94)
JCOLL	0.571	(11.58)	0.454	(10.24)	0.165	(7.43)
UNIV	1.020	(17.12)	0.666	(11.37)	0.441	(16.01)
TEN	0.111	(46.05)	0.096	(41.19)	0.089	(42.03)
TENSQ	-0.005	(16.89)	-0.003	(13.89)	-0.003	(19.36)
EXP	0.031	(23.69)	0.029	(22.26)	0.004	(4.06)
EXPSQ	-0.0007	(18.49)	-0.0007	(20.98)	-0.0001	(4.05)
MARRD	-0.144	(9.90)	-0.108	(8.30)	-0.034	(3.11)
MANAGE	-0.367	(7.40)	0.343	(7.10)	0.274	(11.61)
CLERK	0.220	(22.19)	0.217	(23.07)	0.165	(23.70)
REG 2	-0.111	(15.96)	-0.190	(23.35)	-0.228	(29.15)
REG 3	-0.059	(8.22)	-0.201	(26.14)	0.025	(3.76)
REG 4	-0.146	(16.49)	-0.107	(10.88)	-0.048	(5.01)
REG 5	-0.066	(8.83)	-0.160	(21.03)	-0.076	(10.77)
SIZED 12	0.072	(5.35)	0.070	(4.35)	-0.074	(5.54)
SIZED 4	-0.023	(2.30)	-0.041	(3.71)	0.042	(4.09)
SIZED 5	0.034	(4.28)	0.061	(7.13)	0.155	(17.71)
LOCRDD	0.160	(30.94)	0.034	(5.32)	-0.013	(2.30)
MICRDD	0.134	(19.72)	0.141	(19.76)	0.096	(14.09)
HICRDD	0.138	(8.37)	0.139	(12.36)	0.120	(7.64)
$\bar{R}^2$	0.47		0.50		0.54	
N	12736		10296		9539	
ln WAGE의 평균값	5.73		6.31		7.27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근로자 표본」



중된 재산과 부, 그리고 그들이 행사하는 경제적인 권력은 이조시대 국왕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기에 재벌에 관한 논의는 늘 세인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최근 정인수(1991), 최상철(1992)은 각각 독립적으로 재벌과 임금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들 논문 또한 노동경제 전공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인수는 전산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50대재벌사업체인가 아닌가 라는 사실이 근로자개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1986-1989년간 살펴보고, 최상철은 제조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30대재벌사업체 또는 비재벌사업체인가 아닌가 라는 사실이 근로자개인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980년, 1984년, 그리고 1989년에 살펴보았다.

특히 최상철은 임금함수에 재벌사업체여부라는 더미변수를 넣은 후 남녀표본에 있어서 재벌사업체여부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를 보고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재벌사업체고용의 임금프리미엄은 1980년 4.4%, 1984년 10.4%, 1989년 13.4%이며, 그리고 여자의 경우 1980년 -8.2%, 1984년 -9.8%, 1989년 11.3% 라고 추정하였다(최상철, 1992, p. 177). 재벌사업체근로자의 임금이 비재벌사업체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예상보다는 낮은 값을 갖고 있고, 때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낮은 추정결과를 보여 자신의 주요한 결과를 논문의 부록표로 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상철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가 재벌사업체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임금결정모형에 넣었을 때, 재벌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임금결정과정의 동질성을 갖고, 비재벌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재벌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와는 다르지만 비재벌사업체라는 부문에 있어서는 임금결정과정에 있어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 30대 재벌사업체이면서도 상위 5대재벌 사업체와, 재벌이라고 분류되는 기업집단 중 하위에 속하는 재벌사업체 간에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인가?

ii) 30대 재벌사업체 중에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결과 저성장산업의 노동집약적 분야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해 있는 재벌사업체가 있고, 또한 경영악화로 부실화된 사업체를 인수하여 재벌사업체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재벌사업체의 임금결정은 비재벌사업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인가?

iii) 비재벌사업체로 분류된 사업체 중 상당수의 독과점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비재벌사업체의 독과점기업은 재벌사업체로서 독과점기업의 임금결정과 어떻게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인가?

이와 같은 세가지 질문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요하는 주제이다. 만약 재

별사업체와 비재별사업체로 나누었을 때 재별사업체 중 독과점기업과 비재별사업체 중 독과점기업은 유사한 노동시장행위를 하며, 재별사업체의 비독과점사업체는 비재별사업체의 비독과점사업체와 유사한 노동시장행위를 할 때, 이 경우 재별사업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에는 독과점재별사업체와 비독과점재별사업체의 임금효과가 서로 뒤섞여 그 정확한 의미의 해석은 불가능하게 된다.

재별은 다수의 독과점적 기업을 가지며, 상호 결합되고 특정개인이 소유지배하는 재별 기업집단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재별의 본질적 특징은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이라는 가설을 필자는 제시하고자 한다. 즉 다수의 비독과점적 기업으로 결합된, 그리고 특정개인이 소유지배하는 재별 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갖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독과점기업을 갖는 재별에의 경제력집중이 경제의 주요한 특징일 때, 그 완화책으로서 흔히 거론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닐수 있다. 설혹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독과점이라는 시장지배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없으면, 산업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별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데 산업집중도를 통제한 후 재별사업체의 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집중도를 통제한 후의 재별의 순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재별사업체가 임금에 관하여 기업집단의 일원으로 임금을 공동결정하는지의 여부이다. 비재별사업체와 같이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 중의 하나여서 공동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기업집단의 일원으로서 기업집단의 공동결정의 영향력 여부를 우리는 측정하고자 한다. 즉 독과점도를 나타내는 산업집중도 외에 근로자의 사업체가 재별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ln \text{WAGE} = & \gamma_0 + \gamma_1 X_1 + \dots + \gamma_9 X_9 + \gamma_{10} X_{10} \dots + \gamma_{18} X_{18} \\ & + \gamma_{19} \text{LOCRDD} + \gamma_{20} \text{MICRDD} + \gamma_{21} \text{HICRDO} \\ & + \gamma_{22} \text{CHAEBOL} + \varepsilon \dots \dots \dots \text{모형(3)} \end{aligned}$$

모형 (3)은 모형 (2)에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30대재별 계열사업체이면 1 아니면 0인 값을 갖는 CHAEBOL이라는 더미변수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모형 (1)에서 이미 설명된 인적속성변수는  $X_1 \dots X_9$ 로, 직무·직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X_{10} \dots X_{18}$ 로 간결히 표기되어 있다. 재별사업체 더미변수의 계수  $\gamma_{22}$ 는 산업집중도를 통제한 후의 재별의 순효과를 측정한다. 모형 (3)에서는 고위고집중산업의 재별기업 및 중위고집중산업의 재별기업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분석될 수 있다. 고위고집중산업의 재별사업체가 경쟁산업의 비재별사업체에 대하여 갖는 임금프리미엄은  $(\gamma_{21} + \gamma_{22})$ 이며, 중위고집중산업의 재별사업체가 경쟁산업의 비재별사업체에 대하여 갖는 임금프리미엄은  $(\gamma_{20} + \gamma_{22})$ 로

될 것이다. 중위저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가 경쟁산업의 비재벌사업체에 대해 갖는 임금프리미엄은  $(\gamma_{19} + \gamma_{22})$ 가 될 것이다. 즉, 재벌사업체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고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 중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 그리고 중위저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로 나누어 파악된다.

〈표 10〉과 〈표 11〉은 모형 (3)을 남녀표본으로 나누어 각각 추정한 결과이다.

산업집중 이외에 재벌이 갖는 추가적 임금효과는 남자의 경우 1980년 4.6%, 1984년 4.0%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나, 1989년은 12.2%로 크게 상승하였다.

우리는 〈표 10〉에 나타난  $\hat{\gamma}_{19}$ ,  $\hat{\gamma}_{20}$ ,  $\hat{\gamma}_{21}$ ,  $\hat{\gamma}_{22}$ 를 이용하여 경쟁산업 비재벌사업체에 대비한 고위고집중산업 재벌사업체 및 중위고집중산업 재벌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을 〈표 12〉에 정리하였다. 경쟁산업의 비재벌사업체에 대비한 고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은 1980년 31.5%, 1984년 30.9%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1989년 34.9%로 다소 상승하였다. 경쟁산업의 비재벌사업체에 대비한 중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은 1980년, 1984년, 1989년에 각각 15.1%, 15.8%, 그리고 24.2%로 되어 경쟁산업의 비재벌사업체에 대비하여 중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은 1980-1989년간 9.1% 포인트 증가하여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하겠는데, 이는 같은 기간 고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와 중위저집중산업의 재벌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이 각각 3.4% 포인트, 5.6% 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명백해진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산업집중을 통제한 후 재벌사업체여부라는 사실자체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1980년과 1984년에 각각 4.6%, 3.9%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9년 12.2%로 크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벌사업체 여부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1980년과 1984년에 각각 -3.3%, -2.9%로 負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1989년 10.8%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재벌사업체가 임금결정에서 기업집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행동하는 측면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기왕에 존재해 온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이 갖는 노동시장왜곡에 추가하여 재벌이라는 경제력집중에 의한 노동시장왜곡효과가 상승작용을 하여, 사실상 심각해진 노동시장왜곡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모형 (3)의 추정결과 : 제조업남성

(OLS)

	1980		1984		1989	
CONSTANT	5.629	(325.42)	6.222	(405.72)	7.103	(500.29)
PRIME	-0.130	(10.84)	-0.073	(5.94)	-0.096	(7.17)
HIGH	0.251	(27.78)	0.163	(22.33)	0.142	(20.91)
JCOLL	0.479	(18.95)	0.327	(20.19)	0.234	(18.68)
UNIV	0.849	(47.65)	0.697	(53.16)	0.496	(44.33)
TEN	0.087	(35.79)	0.095	(51.61)	0.073	(48.17)
TENSQ	-0.002	(14.41)	-0.002	(23.47)	-0.001	(21.78)
EXP	-0.042	(25.61)	-0.027	(20.48)	0.022	(21.20)
EXPSQ	-0.0008	(19.02)	-0.0006	(15.09)	-0.0005	(16.89)
MARRD	0.083	(7.56)	0.113	(13.76)	0.082	(12.28)
MANAGE	0.438	(25.03)	0.318	(29.36)	0.227	(24.79)
CLERK	0.231	(21.89)	0.160	(19.58)	0.096	(13.60)
REG 2	-0.147	(12.59)	-0.176	(16.58)	-0.228	(21.10)
REG 3	-0.099	(9.17)	-0.138	(15.70)	-0.076	(9.49)
REG 4	-0.187	(12.60)	-0.126	(11.90)	-0.025	(2.31)
REG 5	0.037	(3.16)	0.043	(5.28)	0.004	(0.51)
SIZED 12	0.048	(2.72)	0.029	(1.74)	-0.065	(4.85)
SIZED 4	0.014	(0.84)	-0.040	(3.04)	-0.008	(0.83)
SIZED 5	0.022	(1.72)	0.047	(4.47)	0.054	(6.33)
LOCRDD	0.085	(8.48)	0.071	(7.62)	0.066	(10.05)
MICRDD	0.105	(10.56)	0.119	(15.62)	0.121	(17.27)
HICRDD	0.269	(16.25)	0.270	(29.11)	0.228	(24.85)
CHAEVOL	0.046	(5.37)	0.039	(5.71)	0.121	(21.80)
$\bar{R}^2$	0.65		0.69		0.63	
N	11723		13509		15172	
ln WAGE의 평균값	6.51		7.19		7.94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근로자 표본」

<표 11> 모형 (3)의 추정결과 : 제조업여성

(OLS)

	1980		1984		1989	
CONSTANT	5.395	(500.93)	6.047	(532.64)	6.908	(658.92)
PRIME	-0.114	(19.60)	-0.066	(7.60)	-0.034	(3.52)
HIGH	0.221	(29.37)	0.157	(23.25)	0.085	(14.61)
JCOLL	0.568	(11.54)	0.450	(10.15)	0.174	(7.98)
UNIV	1.013	(17.03)	0.660	(11.28)	0.433	(16.03)
TEN	0.111	(46.15)	0.097	(41.36)	0.089	(42.72)
TENSQ	-0.005	(16.96)	-0.003	(14.04)	-0.003	(19.63)
EXP	0.031	(23.07)	0.029	(21.55)	0.007	(7.09)
EXPSQ	-0.0006	(18.05)	-0.0007	(20.39)	-0.0002	(6.63)
MARRD	-0.142	(9.79)	-0.107	(8.18)	-0.041	(3.79)
MANAGE	0.371	(7.50)	0.350	(7.25)	0.268	(11.56)
CLERK	0.221	(22.34)	0.222	(23.44)	0.154	(22.46)
REG 2	-0.098	(13.61)	-0.186	(22.90)	-0.238	(30.94)
REG 3	-0.055	(7.60)	-0.195	(24.71)	0.000	(0.12)
REG 4	-0.148	(16.76)	-0.110	(11.22)	-0.045	(4.77)
REG 5	-0.058	(7.60)	-0.154	(19.89)	-0.116	(15.98)
SIZED 12	0.070	(5.22)	0.073	(4.54)	-0.064	(4.92)
SIZED 4	-0.024	(2.43)	-0.039	(3.62)	0.045	(4.44)
SIZED 5	0.044	(5.43)	0.065	(7.51)	0.147	(17.12)
LOCRDD	0.155	(29.70)	0.043	(6.33)	-0.010	(1.72)
MICRDD	0.139	(20.28)	0.144	(20.08)	0.071	(10.54)
HICRDD	0.144	(8.73)	0.147	(12.89)	0.121	(7.84)
CHAEBOL	-0.033	(6.19)	-0.029	(3.92)	0.108	(18.79)
$\bar{R}^2$	0.47		0.50		0.56	
N	12736		10293		9539	
ln WAGE의 평균값	5.73		6.31		7.27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근로자 표본」

<표 12> 경쟁산업 비재벌사업체에 대비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재벌사업체의 임금효과:남성의 경우  
(단위: %)

	중위저집중산업의 재벌사 업체: $\hat{\gamma}_{19} + \hat{\gamma}_{22}$	중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 업체: $\hat{\gamma}_{20} + \hat{\gamma}_{22}$	고위고집중산업의 재벌사 업체: $\hat{\gamma}_{21} + \hat{\gamma}_{22}$
1980	13.1	15.1	31.5
1984	11.0	15.8	30.9
1989	18.7	24.2	34.9

## IV. 경제력집중과 임금구조

임금구조란 근로자의 인적속성등 노동공급특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이며, 또는 산업이나 사업체 등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말한다. 우리는 이제 성별임금격차 및 직종별 임금격차에 경제력집중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형 (1), 모형 (2), 그리고 모형 (3)에서 직종다미변수인 MAN-AGE와 CLERK를 제거한 회귀모형을 사무관리직표본과 생산직표본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모형 (1)의 성별·직종별 추정결과 중 CR3의 계수만 수록한 요약표는 <표 12>에 실려 있다. 모형 (2)의 성별·직종별 추정결과 중 경쟁산업에 대비한 중위저집중산업, 중위고집중산업, 고위고집중산업의 계수만 수록한 요약표는 <표 13>에 실었고, 모형 (3)의 성별·직종별 추정결과 중 <표 13>의 편제와 같게 하되, 재벌다미의 계수가 추가된 것이 <표 14>이다. 우리의 논의는 <표 12>~<표 14>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표 12>~<표 14>를 추정하는 데 36개의 회귀식이 추정되었는데, 이 회귀식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논문의 분량을 지나치게 많게 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sup>21)</sup> <표 12>~<표 14>에 제시된 추정치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이며, \*\* 표시의 추정치는 5% 유의수준, \* 표시의 추정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이다. 최소한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는 보고되지 않는다.

### 1. 경제력집중과 성별 임금격차

우선 성별임금격차에 경제력집중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미 i) 연속변수인 CR3가 10% 상승할 때 남성의 임금은 1980년 3.5%에서 1984년 2.3%로 하락하고, 1989년에는 2.9%로 반등하였으나, 1980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1) 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정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표 6〉과 〈표 7〉 참조), ii) 1989년의 경우 CR3가 10% 증가할 때 여성임금의 증가율은 남성임금증가율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표 6〉과 〈표 7〉 참조), iii) 경쟁산업 대비 고위고집중산업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남성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표 8〉과 〈표 9〉 참조) 등에서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독과점적 초과이윤은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경향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독과점적 초과이윤의 분배의 차별 뿐만 아니라, 독과점기업에서 여성은 입직구에서의 고용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력집중은 기존의 남존여비의 노동시장구조를 온존시킨다고 할 수 있다.

## 2. 경제력집중과 직종별 임금격차

경제력집중이 직종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된다. i) 경제력집중의 지표 중 연속변수인 CR3가 10% 증가할 때 남자사무관리직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표 12〉 참조)은 1980년 3.5%에서 1989년 3.1%로 근소히 감소하나 남자생산직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1980년 3.5%에서 1989년 6.4%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12〉 참조). ii) 〈표 13〉에 의하면, 경쟁산업 대비 고위고집중산업의 남자사무관리직에 주어지는 임금프리미엄은 1980년 28.4%로 남자생산직에 주어지는 임금프리미엄 26.0%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 동일산업의 남자사무관리직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경쟁산업 대비 고위고집중산업의 남자생산직에 주어지는 임금프리미엄은 1984년에 32.2%로 더 높게 되고, 1989년 28.6%로서 1980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경쟁산업 대비 중위고집중산업의 남자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1980년 9.9%에서 1989년 21.2%로 증가하여 중위고집중산업에서 남자생산직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프리미엄이 가장 팽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표 13〉 참조). 위의 두가지 이유에 의하여 경제력집중은 사무관리직과 생산직 간의 임금격차의 축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산업집중률 10% 증가시 성별·직종별 임금증가율

(단위: %)

	남자사무관리직	남자생산직	여자사무관리직	여자생산직
1980	3.5	3.5	4.8	3.3
1984	3.4	5.5	3.5	2.3
1989	3.1	6.4	2.4	2.9

### 3. 경제력집중과 생산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의 새로운 측면이 이 논문에서 크게 부각되는데, 그것은 남성생산직 근로자내에서 고집중산업 재벌사업체에 속하는 남성생산직 근로자와 저집중산업 비재벌사업체에 속하는 남성근로자간의 임금격차의 확대라는 측면이다. <표 14>에 의하면 i) 고위고집중산업 생산직과 경쟁산업 생산직 간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1980년부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불경기 또는 저성장기인 1984년에 확대되다가 1989년 호황기 또는 고성장기에는 1984년 수준보다는 축소되었으나 1980년보다는 근소하게 높게 되었다. ii) 중위고집중산업 생산직과 경쟁산업 생산직 간의 격차는 크게 확대되고 중위고집중산업 생산직은 고위고집중산업 생산직에 상당히 접근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표 14> 참조). iii) 재벌사업체에 소속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프리미엄 또한 남자생산직의 경우 1980년 6.5%에서 1989년 11.7%로 확대되었고, 여자생산직의 경우에도 1980년 -3.7%에서 1989년 7.7%로 크게 반전되었다(<표 15> 참조).

고집중산업 재벌사업체에 고용된 생산직 근로자들은 1980년 이후 독점적 초과이윤을 사용자와 나누어 가져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와, 고집중산업 재벌사업체 생산직근로자와

<표 14> 경쟁산업대비 고위고집중산업, 중위고집중산업, 중위저집중산업의  
성별·직종별 프리미엄

(단위: %)

	남 자			여 자		
	중위저집중 산 업	중위고집중 산 업	고위고집중 산 업	중위저집중 산 업	중위고집중 산 업	고위고집중 산 업
<사무관리>						
1980	9.9	7.8	28.4	17.8	12.5	46.9
1984	-6.6	3.2	21.5	-8.8	6.5	17.8
1989	-	9.1	15.0	-	4.8	15.7
<생산직>						
1980	7.1	9.9	26.0	16.2	13.8	3.2*
1984	13.5	16.8	32.2	4.3	15.3	12.4
1989	10.4	21.2	28.6	-1.2	11.6	8.5

주: \* 표시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용 유의한 추정치.

- 표시는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은 추정치.

그 외에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15〉 고위고집중산업, 중위고집중산업, 중위저집중산업 그리고 재벌사업체에 있어서  
성별·직종별 프리미엄

(단위: %)

	남 자				여 자			
	중 위 저집중 산 업	중 위 저집중 산 업	고 위 저집중 산 업	재 별	중 위 저집중 산 업	중 위 저집중 산 업	고 위 저집중 산 업	재 별
〈사무관리직〉								
1980	10.1	7.8	28.0	-	16.5	12.0	48.6	-5.9
1984	-7.1	2.8	19.8	2.9	-8.7	6.1	16.4	-
1989	-	5.1	14.0	14.1	-	-	13.3	21.6
〈생산직〉								
1980	7.8	11.2	26.2	6.5	15.7	14.3	3.6**	-3.7
1984	13.2	16.3	30.9	2.5	5.6	15.7	13.2	-4.4
1989	10.4	16.0	28.0	11.7	-	9.8	8.6	7.7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이며, 그 외에는 〈표 14〉의 주와 동일

저집중산업 비재벌사업체 생산직근로자 간의 현격한 임금격차는 앞으로 한국의 임금구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받아야 할 새로운 분야가 된다.

요약하자면 경제력집중은 사무관리직에게 제공되는 임금프리미엄을 감소시키고 생산직에게 제공되는 임금프리미엄을 높여 직종간 임금격차의 해소에 기여를 한다. 그러나 집중은 성별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으며, 또한 경제력집중은 생산직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직종별 임금격차에 경제력집중이 미친 영향에 관하여 필자는 논의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 더 있다. 이정우(1984)는 1966년 광공업센서스에 나타난 산업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경우 산업 4자리분류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이 10% 증가할 때 화이트칼라의 임금은 3% 증가하고, 블루칼라의 임금은 감소하나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은 결과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독점력을 가진 기업에서 발생하는 독점이윤이 경영자, 전문가, 기술자들 사이에 분배되지만 기업내부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블루칼라까지는 그 혜택이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제조업 개인별 미시자료의 추정결과는 1980년에는 생산직과 사무직에 거의 유사한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을 제공하던 경제력집중이 1980년 이후 생산직에게 유리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제시하고 1980년 이전의 상황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놓겠다. 다만 한가지 제시할 수 있는 가설은 1970년대까지는 경제력집중은 사무관리직에게 보다 큰 임금프리미엄을 제공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는 생산직에게 보다 큰 임금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1970년대 자료분석을 통해서 만

약 필자가 제시하는 이 가설이 옳다고 입증된다면 생산직에 대하여 보다 큰 임금프리미엄을 독과점기업이 제공하게 된 계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맺는 말

### 1. 몇 가지 중요한 사실과 그 의미

경제력집중과 임금 간의 관계를 우리는 개인근로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추이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와 그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i) 상품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은 1980년, 1984년, 1989년의 경우 노동시장의 임금에 실로 강력한 正의 효과를 미친다. 특히 산업집중을 고려한 후에 나타난 재벌사업체의 임금에 대한 순효과는 1989년에 대단히 크게 되어 기왕에 존재해 온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이 갖는 노동시장 왜곡에 추가하여 재벌이라는 경제력집중에 의한 노동시장 왜곡효과가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시장의 독과점은 노동시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가설은 옳지 않으며, 수요독점모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을 설명하려는 것 또한 옳지 않다.

ii) 경제력집중이 강할수록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고집중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이 유명무실했던 1980년, 1984년에 이미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있었다. 그러한 임금격차가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1989년에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났고, 다만 중위고집중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힘, 또는 노조의 위협효과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iii) 호경기 또는 고성장기에 경쟁산업의 단순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로 임금상승이 발생하면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다소 축소되지만,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제도적으로 유지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경쟁산업의 임금상승은 독과점산업의 임금상승을 유발시켜 경쟁산업의 임금상승은 전체 경제에 파급되는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 이 때 독과점부문이 임금인상을 상품가격상승으로 전가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교란은 궁극적으로 상품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

는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반면 불경기 또는 저성장기에 있어서 경쟁산업의 단순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감퇴는 임금인상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산업의 노동력이 실업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독과점이 적정이윤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상품가격을 인상시킴에 따라 독과점적 초과이윤이 독과점기업의 노동자에게 종전과 같이 일부 배분할 때,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임금격차는 불황기에 확대된다. 불황기에 경쟁산업의 근로자들은 임금소득분배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의 위험으로 근로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

iv) 독과점은 직종간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기여하지만 성별임금격차 및 생산직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심화, 또는 유지시키는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 2. 정부정책에 던지는 함의

이상의 주요한 논점이 시장에서 경쟁을 확충하려는 정부정책에 던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i) 상품시장의 경제력집중이 노동시장의 임금에 실로 강력한 正의 효과를 지니는 한, 노동시장의 왜곡을 고려하지 않은 독과점의 폐해는 실제의 폐해를 크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독과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의 완화라는 상품시장정책과 독과점 및 재벌사업체에 의한 과도한 임금프리미엄 지급규제라는 노동시장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ii) 독과점대기업, 재벌기업 등의 노조에 의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임금이 크게 오르고 이것이 전체경제에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총액임금제를 통하여 고임금업체의 임금을 정부개입에 의해 규제하려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의 논리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원인분석의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리의 가설에 의하면 인력부족에 의해 경쟁산업의 임금인상이 있을 때 독과점부문과 경쟁부문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한, 경쟁산업의 임금인상은 전체경제로 파급되고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독과점부문과 경쟁부문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를 형성시킨 근본적 원인, 즉 독과점의 시장지배력의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iii) 단순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인력난이 경기확장기 때마다 경제의 중요 애로로 등장하

게 될 것이 예측되고, 여성인력활용이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처방안일 때, 고집중산업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승진차별, 그리고 임금차별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자극하고 유인하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3. 향후 연구과제

i) 비교적 동질적 노동력에 대해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 간의 현격한 임금격차의 지속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집중산업과 경쟁산업이라는 노동수요특성에 의해 분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집중산업, 독과점기업, 재벌기업 등에 있어서 임금결정과정을 경쟁산업, 비재벌기업 등에서의 임금결정과정을 비교해 분석하는 작업, 고집중산업, 독과점기업, 재벌기업 등에 있어서 인적자원 개발방식(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의 성격, 노동력이동의 방향, 그리고 고집중산업, 독과점기업, 재벌기업에서의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의 분야에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ii) 임금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1970년대에 있어서 산업집중과 임금 간의 관계가 분석되어 1980년대의 특징과 비교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ii) 마지막으로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간의 상호연쇄작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관한 동학적 분석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원인분석에 대한 중요한 기여가 되는 분야일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강명현(1991), 『경제력집중과 한국경제』, 매경신서 32.  
 강철규(1992), 「경제력집중과 억제대책」,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  
 박세일(1987),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  
 박영범(1987), Concentration and Earnings in an Open Economy : A Case Study of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1.  
 배무기(1990),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 I』.  
 박원구·박세일(1984), 『한국의 임금구조』, KDI.  
 성백남(1992),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산업별 임금격차」, 『노사관계』 2권 2호.  
 옥규성(1989), *Government Policies, Industrial Structure and Performance in Korea, 1972~84*, Univ. of North Carolina 박사학위논문.  
 윤창호·이규억(1988), 『산업조직론』, 법문사.

- \_\_\_\_\_ (1992), 『산업조직론』, 법문사.
- 이규억(1977), 『시장규제와 독과점규제』, KDI.
- \_\_\_\_\_ (1980), 「한국 제조업의 산업조직」 『한국개발연구』, 2권 4호, KDI.
- 이규억·서진교(1981), 「한국제조업의 산업집중분석」, KDI, 연구조사보고 제 81-07.
- 이규억·이재형·김주훈(1984), 『시장과 시장구조』, KDI.
- 이규억·이성순(1985),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KDI.
- 이원덕(1987), 『Earnings Distribution and The Role of Enterprises in Korea』, Boston Univ. 박사 학위논문.
- \_\_\_\_\_ (1991), 「우리나라 임금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이정우(1984), 「한국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구조의 분석」, 『경상대학논집』, 경북대 경상대학.
- 이종훈(1992), 「임금프리미엄의 결정요인」, 제5차 국제한국인경제학자 학술대회, 8월.
- 이주호(1992),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문, 6월.
- 장지상(1989), 「경제력 집중」 『한국경제론』(변형운 편), 유평출판사.
- \_\_\_\_\_ (1992),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비민주적 경제구조」,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
- 정갑영(1991), 『산업조직론』, 박영사.
- 정인수(1991), 「한국의 임금구조 - 6·29 이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조우현(1985), 「임금, 노동생산성, 물가 및 노동자의 생활」,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들베개.
- \_\_\_\_\_ (1988), 「한국의 임금구조 서평」, 『사회과학논평』, 사회과학연구회.
- \_\_\_\_\_ (1992),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수요측 특성과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II)』, 한국경제연구원.
- \_\_\_\_\_ (1992), 『노사관계개혁론』, 창작과 비평사
- 최상철(1992), 「한국의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Belman, Dale(1988), Concentration, Unionism, and Labor Earnings : A Sample Selection Approa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Aug.
- Dalton, James A. and E. J. Ford(1977), Concentration and Labor Earnings in Manufacturing and Utiliti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1, June.
- Gavarino, J. W. (1950), A Theory of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Vari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4 No. 2.
- Haworth, C. T. and D. W. Rasmussen(1971), Human Capital and Interindustry Wages in Manufacturing,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3, Nov.
- Haworth, C. T. and C. J. Reuther(1978),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Interindustry Wage Determin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0, Feb.
- Hendricks, Wallace(1975), Labor Market Structure and Union Wage Levels, *Economic Inquiry*, Vol. 63, Sep.
- Kwoka(1983), John E. , Monopoly, Plant and Union Effects on Worker Wag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6, Jan.
- Long, James E. and A. N. Link(1983), The Impact of Market Structure on Wages, Fringe Benefits, and Turnove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6, No. 2.
- Slichter, Sumner H. (1950), Notes on the Structure of Wag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2, No. 1.
- Weiss, Leonard W. (1966), Concentration and Labor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No. 1.